◇부천 석왕사 현재의 모습(전경).

천막법당서 신행요람 '우뚝'

석왕사 20년

◇주지 영담스님

바른불교, 실천불교를 위해 신도시 한가운데 사찰을 창건한 부천 보운산 석왕사(주지 영담)가 지난 15일로 천막법회를 시작한지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76년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에서 천막법회를 시작으로 대중포교활동을 벌여온 석왕사는 현재 4만여명의 신도들이 전법과 신행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석왕사가 다른 도심사찰과는 달리 불교의 대중화에 급성장한 것은 사회교육활동과 신행활동 등에서 그 이유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현재 석왕사는 룸비니 어린이 집, 룸비니 유치원, 특수아동 조기교실, 노인대학, 마야야간학교, 외국인 노동자의 집 등 다양한 대중교육의 장이 마련돼 있다.

특히 룸비니 특수아동 조기교실은 정신지체아동, 자폐아동 등 정박아동들을 조기에 발견 정상인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교육활동을 펼쳐 교계에서는 선구자적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이렇게 석왕사가 어린이 시설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린이 목소리가 절에 떠들썩할 때 불교가 젊은 종교로 탈바꿈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영담스님의 지론에 따른 것.

또 석왕사는 사회교육 및 문화활동을 펴는 것과 함께 대중불교를 위한 각종 법회와 신행단체를 통한 신행활동도 어느 사찰 못지 않게 왕성하다.

이처럼 도심속에서 대중과 함께 해온 석왕사가 수도권의 대중사찰로써 굳게 자리를 잡은 것은 이타적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끝없는 실천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십명이 천막에 모여 법회를 보기 시작한 석왕사가 20주년을 맞아 천명이상이 한자리에 모여 법회를 볼 수 있는 대형불교회관인 수행원 건립을 발원하고 나섰다.

신도 4만여명…사회교육장 '자리매김'

어린이·노동자의 집 노인대학등 운영

김중근 기자

종단마다 교양대 설립 '붐'

태고·총지종 불교대 이달 개설

법륜·관음·법화종도 내년 추진

태고종 봉원불교교양대학과 총지종 총지불교대학이 이달내 개설되고 올해 설립방침인 법륜종을 비롯하여 관음종과 대한법화종이 내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을 서두르는등 각 종단에 불교교양대 설립 열풍이 불고 있다. 신도들의 교리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각 종단의 교양대학은 종단의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

불교교리의 체계적 교육을 통한 불교대중화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봉원불교교양대학(학장 대운)은 오는 18일 신촌 봉원사 삼천불전에서 50여명의 제1기 입학생들의 개강식을 갖고 공식출범한다.

3개월과정의 봉원불교교양대학은 불교개론 불교의식이론 경전강독 초급일어등의 과목이 개설되며 교수진은 운곡스님(태고종 포교원장) 권기종교수(동국대) 만춘스님(동방대 교수)등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동안 진행된다.

또 삼천불전 지하 3층에 강의동이 마련되는 오는 9월에는 불화 법회 다도 꽃꽂이 사회봉사등의 과목을 개설하여 문화강좌위주의 신도교양대학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초대학장 대운스님은 "종단의 일반신도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이를 발전시켜 본격적인 불교문화예술대학으로 육성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총지종도 종도들의 밀교수행중심에서 불교교리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총지불교대학(학장 효강)의 개강식을 오는 23일 통리원에서 갖는다.

총지불교대학은 교화스승반과 신도반으로 나눠 1기 60명을 모집하며 스승반은 월 1회, 신도반은 매주 1회씩 교육할 예정이다.

40대 위주의 젊은 강사진을 영입하여 현실에서 현현될 수 있는 불교이론교육에 매진할 방침이라는 총지불교대학은 오는 20일까지 통리원 법장원건물 2층에 시청각강의실등 최신 시설의 강의실을 마련하고 불교학개론과 밀교학을 중점으로 강의할 것이라고.

특히 97년도부터는 2년제의 학제로 개편하여 수료후 법사자격을 품수하고 입학생도 종단차원에서 벗어나 일반인들도 모집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와관련 학장 효강정사는 "부처님의 근본교리를 통해 불교근본정신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신행생활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총지불교대학의 근본교육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관음종과 대한법화종 한국법륜종도 불교교양대학 설립을 추진하는등 각 종단들도 신도와 승려의 교육문제에 관심이 일고 있다. 이들 군소종단들은 강원의 부재로 인해 교양대학에서 신도교육과 함께 승려교육도 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법륜종은 올해내로 교양대학을 설립한다는 방침을 정해 내부 추진작업중이며 관음종도 올해를 승려교육의 기본방침 설정의 해와 신도조직 활성화의 해로 정하고 승려교육과 신도교육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불교교양대학 설립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대한법화종은 올해 불교교양대학 설립계획을 강사선임과 예산문제로 내년초 개강키로 했다.

김원우 기자

월드컵유치기원 10만관등법회

태고종, 5월29일 한강시민공원서

태고종(총무원장 혜초)은 국민의 염원인 월드컵 한국유치를 기원하고 국민정서를 결집시키는 2002년 월드컵 유치 성공기원 10만 관등 영산대법회를 5월 29일 오전 11시 한강시민공원 특설무대에서 거행한다.

비행선 연막쇼와 범패시연 월드컵유치 서명운동을 식전행사로 막을 여는 이날 대법회는 혜초총무원장의 결의를 다지는 대회사, 보성 종정스님의 법어, 대한축구협회 정몽준회장의 월드컵유치 기원문 낭독과 불자가수 김흥국씨의 월드컵의 노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2부와 3부에서는 영산재 시연과 북춤공연이 이어지며 4부에서는 연예인 축하공연과 월드컵유치기념 스포츠 파노라마, 조명쇼 불꽃쇼를 펼칠 계획이다.

이와관련 행사를 준비중인 태고종 총무부장 법현스님은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퍼지도록하여 온 국민의 염원인 월드컵의 한국유치를 기필코 이루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2천만 불자의 기원을 축제형식으로 구성하여 국민정서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고종의 2002년 월드컵 한국유치기원 10만관등 영산대법회는 민간단체의 행사로는 최초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btn BBS등 교계방송사와 여성채널인 G-TV가 생중계할 계획이다.

방송가 소식

이수성 국무총리 출연

◇이수성 총리

◇해성스님

이수성국무총리는 지난 12일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에 출연,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에 솔선수범해 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총리는 "'거룩한 만남'은 뛰어난 방송의 본보기로서 앞으로도 우리사회 구석구석을 따뜻한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거룩한 만남'의 진행을 맡은 해성스님(연화복지학원 원장)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주위의 어려운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성스님은 지난 91년부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법회, 지체장애인을 위한 야외법회등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탤런트 주용만씨 진행

탤런트 주용만씨가 지난 10일부터 불교TV 간판프로 '퀴즈특급 이뭐꼬'의 진행을 맡게 됐다. 주용만씨는 그동안 MBC TV 종합병원등에 출연해 왔으며 그동안 진행해 온 조선아씨와 호흡을 맞추게 된다.

BBS '불교설화' 발매

불교방송은 '불교설화'를 입체 낭독드라마로 제작, 발매하고 있다. 이 설화테잎은 1집과 2집으로 구성됐으며 고창 선운사, 삼각산 삼성암, 진주 미타사, 승주 선암사, 강화 전등사 등 13곳의 설화가 담겨 있다.

BBS개국 6주년·초파일 특집 다양

28일 지구촌 어린이돕기 남산 걷기대회

5월1일 관음사 석가탑형 '대탑' 기공식

5월12일 안산 19일 부천 시민 공개방송

불교방송이 개국 6주년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걷기대회, 공개방송등 불자들과 함께하는 다채롭고 이색적인 행사와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먼저 유니세프(UNICEF 국제연합아동기금)와 함께하는 빈곤퇴치를 위한 '사랑의 걷기대회'가 오는 28일 남산에서 개최된다. 남산순환도로(국립극장~백범광장) 4km 구간에서 열리는 이번 걷기대회에는 유니세프 불교인 클럽과 지구촌 클럽등 6천여명이 참석하게 되며 박정운, 엄정화, 패닉등 유명가수들의 참여속에 지구촌 어린이 돕기 사랑의 콘서트도 함께 열린다. 이 대회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은 북한어린이 및 동남아 불교국가 어린이들을 위해 쓰여질 계획이다.

오는 5월 1일에는 불교방송 개국 6주년을 맞아 서울 남현동 관음사에서 대탑 기공식을 갖는다. 불교방송설립 초기부터 계획된 개국기념 대탑은 석가탑 모양의 9층탑으로 내년 7주년 기념때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이 대탑에는 불교타임캡슐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교방송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특별공개방송도 마련했다. 오는 5월 12일에는 경기도 안산 양궁장에서 안산시민과 함께하는 공개방송을, 오는 19일에는 부천 레포츠 공원에서 부천시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초파일 맞이 특집공개방송을 진행하게 되며 같은 날 종묘공원에서도 공개방송 '온누리에 자비를'을 가질 계획이다. 또한 부처님 오신날인 5월 24일에는 서울랜드 특설무대에서 특집 공개방송을 펼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부처님 오신날 특집 '관응노장 구화산 순례기'를 중국 현지 취재를 통해 오는 5월 22일과 23일 방송할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불교TV '설치비 50%쿠폰' 배포

사찰·SO연계추진…케이블가입자 확보도

불교TV가 불교계 케이블TV 가입자 확대를 위한 케이블TV 설치비 50% 할인쿠폰을 제작 배포한다. 불교TV는 오는 97년 지역방송국(SO) 전 채널의 의무 송출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SO가 직접 케이블 채널 편성권을 행사하는데 대비, 이같은 쿠폰 제도를 마련하게 된것.

이를 위해 불교TV는 지난 1월 부터 3월까지 전국의 53개 SO를 직접 방문하고 권역별로 책임자를 초청하여 불교계 가입자 확대 방안 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또한 앞으로 각 사암연합회와 SO의 연계 주선 및 지원 추진을 통해 불자 가입자를 확대 할 계획이다.

완전경쟁의 방송시장 구조에서 스스로의 시청자와 경쟁력있는 매체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널은 도태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방송현실이다.

케이블TV 또한 각 채널간의 경쟁뿐 아니라 이미 종교채널 3사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과 시청율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할인쿠폰제도는 각 지역 사찰과 SO와의 연계를 통해 불교TV가 우위를 다질 수 있는 좋은 방편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각 종교채널의 시청율은 그 종교의 교세 반영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향후 각 종교채널 사이에 시청율 결과에 따른 자존심 싸움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할인쿠폰 배포와 더불어 각사찰과 불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케이블TV 가입이 최대 관건으로 남아있다.

이 할인 쿠폰을 사용할 경우 아파트는 기존의 6만원에서 3만원으로, 단독주택은 4만원에서 2만원으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쿠폰은 불교TV주주와 사찰 및 유관단체, 일반 불교신도에까지 4월말까지 배포되며 5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게 된다. 〈은〉

목탁소리

장애인의 불국토

김 중 근 〈취재1부 기자〉

20일은 16번째 장애인의 날이다. 하지만 불자라고 자랑하는 장애인들은 마땅히 설 곳이 없다. 타종교에 비해 교계에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따뜻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교계가 장애인의 문제를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창구가 상설화, 전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 장애인이 장애인이라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바로 불국정토일 것이다.

교계는 장애인의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2천만이라고 하는 불교신자 수의 놀음(?)에만 취해 안주하고 있는 상태다. 언제까지 2천만불자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오늘날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것은 그동안 불교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달콤한 불사에만 급급했을 뿐 장기적인 대작불사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교계는 무엇보다 장애인시설에서 타종교에 비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산 천마재활원을 비롯 몇몇 단체에서만 재활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을 뿐 전무한 상태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개신교, 천주교 등 타종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설립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4월을 장애인의 달로 지정, 사랑의 수화제, 1일 관광, 작은사랑예술제, 무료진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장애인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로인해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79.5%) 가운데 불교신자는 4.8%를 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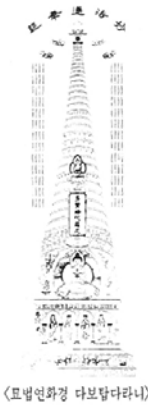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함께 사는 세상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닐지라도 사부대중 모두 원력을 세워 정진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 佛事(불사)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스님께 알려드리는 귀중한 정보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 62cm × (세로) 160cm

◎ 佛塔다라니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주는 강력한 氣가 발산됨이 입증된 본회의 佛塔다라니 2종류를 사용함으로서 인체(人體)와 영계(靈界)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하여, 길흉화복을 판단할 수 있고, 조상영을 판단하여 運을 좋게 변화시키고 또한 佛塔다라니로서 영(靈)을 천도시키는 방법 등이 수록된 귀중한 정보책자를 일차로 금년에 1,000군데 사암에 보내드려 큰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연락주시는 대로 보내드리오니 주소, 사찰명, 전화번호만 알려주시기 바라오며, 이 책자는 현재 사암을 운영하시는 스님께만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이 方法은……

① 신도 개개인의 현재의 運과 그 신도의 남편, 부인, 자식, 부모, 형제들의 운까지도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해줄 수 있고 이 방법으로 스님께서 신도들의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바꾸어줄 수 있으며

② 영가의 빙의상태, 관념파장의 방해를 확인하여, 영가의 빙의 및 관념파장을 천도, 차단하는 원리를 보여줄 수 있으며

③ 신도들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방해줄 수 있으며

④ 산소에 탈이 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산소를 잘못 써서 조상령이 천도되지 못하고, 그래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어느 산소이든 그 산소 자리를 좋은 地氣가 넘치도록 하여 후손들이 발복하도록 해줄 수 있고

⑤ 집터나, 상가, 사무실 등에 좋은 운기가 계속적으로 뻗치도록 하여 만사형통하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님은 다년간 경험을 해본결과로, 그 신비성이 확실함을 알게 되어, 이번 기회에 책자를 만들어 보내드리고, 사찰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역경을 겪고 있는 스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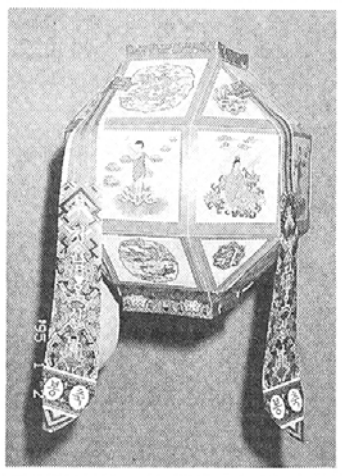
◎ 佛子들 대부분은 자신의 현재의 운세와 운명을 몹시 알고자 하며 또한 나름대로 간절한 염원과 소원들이 있어 이것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방편을 스님들께서 제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제 불탑다라니가 스님의 기도법력과 합해져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것입니다.

■상담문의 : 대한불교 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 :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전화:(051) 864-3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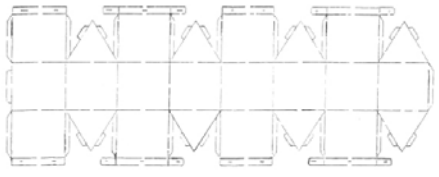
■책자신청 :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0335) 34-9490, 39-1906, 야간(0342) 706-3060

실용신안 : 제14461호 의장등록 : 제12382호

이제 연등에 변잡한 풀칠이 필요 없습니다!!



펼친상태(골조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단 한번의 공정으로 2분내 완성

*전국 불교용품점 및 본사로 문의바랍니다.

홍법등

오직불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작·이·간·편·한·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2분내에 완성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재·사·용·가·능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며 수 회의 재사용이 가능」토록 고안.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취급품목 봉축행사용품 일체
홍법팔각등, 초벌등, 영가등, 천도광명등, 삼재소멸등, 만불기, 천수다라니번, 교패(불자의집, 교통안전기원패)

오직 불심으로 보답하는 홍법기획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 2동 398-6
TEL : (032) 613-4027, 4028
FAX : (032) 665-0965